

**출애굽기 1 장. 이스라엘 사람이 학대를 받다**

1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5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일흔 명이다. 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16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20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21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1.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가 아닌 레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라헬 (베냐민), 라헬의 몸종 빌하 (단, 납달리), 레아의 몸종 실바 (갓, 아셀)가 낳은 자녀들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2.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마련해 준 고센 지방에서 정착하여 번성하게 되면서 (7, 12, 20 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3. 세월이 흘러 극심한 가뭄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노동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손이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4.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는 산파들에게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인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아이들을 살려 둡니다. (16-17 절)
5. 이에 이집트 왕은 산파를 불러들여 꾸짖습니다. 산파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가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서 자기들은 손을 쓸 수 없다고 대답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18-19 절)
6.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집안들을 번성케 하십니다.(20-21 절)

**출애굽기 2 장 1-10 절. 모세의 탄생**

1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2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3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10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1. 모세는 레위 가문의 부모에게서 태어 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에도 두려워 하지 않고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다고 고백합니다. (히 11:23)
2.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그 부모는 갈대 상자를 구하여 아이를 담아 강가로 띄워 보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영어 성경(KJV)은 갈대 상자를 방주(ark)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노아가 노도 닳도 없는 방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3. 그렇게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모세는 우연히 목욕하러 나온 이집트 왕의 딸에게 발견되고,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는 샅을 받으며 이집트 왕가의 보호를 받으며 젖먹일 동안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4. 젖을 떤 모세는 이집트 왕의 딸에게 보내어져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고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고 하여 모세라고 지음을 받게 됩니다.

#### 출애굽기 2 장 11-25 절.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11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15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 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24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25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1.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 이집트의 모든 선진 문물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의 억울함을 돕고자 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2. 출애굽기 2 장 24-25 절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앞으로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